

실크로드와 이슬람의 길: 수니파와 시아파



강사: **안신** 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종교철학 석사학위를,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배재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종교교육과 종교문화 연구 및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문화를 통해 본 기독교 사회복지학의 이해』, 『한국 기독교의 선교와 이슬람의 다와』, 『다문화종교교육의 이해』 등이 있다.

이슬람에는 두 가지 큰 종파로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에 아부 바크르를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주장하는 다수 무슬림이 수니파를 구성하였고,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를 후계자로 지지하는 소수 무슬림이 시아파를 이루게 되었다. 양자의 차이는 무함마드의 후계자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조직과 꾸란해석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본 강좌는 이슬람 공동체의 85-90% 정도를 이루는 수니파와 10-15% 정도를 이루는 시아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슬람을 대표하고,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의 심장지로 간주된다. 일위일체 알라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신앙의 목표와 초점은 같지만,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기준을 신앙적 리더십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함마드와의 혈통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종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수니파와 달리, 시아파는 성직자를 성인으로까지 추대하여 무덤을 성소로 간주하고 성지순례를 행한다. 세계 종교 이슬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이슬람의 두 길, 수니파와 시아파의 세계관이 지닌 주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